

‘문화 빌리지’ 각광… 절반의 성공

■ 2008 광주아시아공연예술제 결산

홍보 부족·관객 유치 아쉬움

2008 광주아시아공연예술제(이하 공연예술제)가 13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번 공연예술제는 지금까지 두 차례 진행됐던 광주국제공연예술제가 내부 잡음으로 좌초, 즉제 연속성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꾸려진 터라 ‘예술제 개최’ 자체에 의미를 둔 행사였다. 특히 사업계획서가 개막 한달 전에야 확정되고 행사 기간 또한 겨울철이라는 점 때문에 관객 동원면에서 애를 먹을 것으로 예상됐다.

일단 이번 행사는 ‘성공작’으로 평하기는 어렵지만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선방, 올 8~9월에 열릴 예정인 광주국제공연예술제와 ‘연결 고리’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흥보 분야는 낙제점에 가까웠고, 프로그램 선정을 둘러싼 일부 예술인들의 자기 밥그릇 쟁기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문화빌리지’ 상설 프로 기대
공연예술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조청 작품’ 가운데는 관객들을 흡입할 수 있는 강력한 작품이 드

물어 아쉬웠다. 예년과 달리 조청 범위가 ‘아시아’로 축소된데다, 준비 기간이 짧은 탓에 체계화된 시스템 대신 몇몇 예술인들의 ‘인맥’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정한 탓이다.

무대에 오른 작품은 모두 16개로 관객들은 8천여명, 객석 좁유율은 62%에 그쳤다. 신중현 콘서트가 1천 300명을 동원, 가장 많은 관객을 모았고 김복희 무용단의 공연 등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반면 ‘아시아 대륙의 소리’는 다소 식상한 프로그램으로 관객 참여가 저조했으며 클래식도 스타급 연주자들의 참여가 아쉬웠다.

소극장 공연에서는 ‘선녀와 나무꾼’과 ‘출추는 남자들’ 등이 작품성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번 공연예술제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옛 광주시립미술관에 둑지를 틀은 ‘문화 빌리지’였다. 미술관 전시실을 문화 마을로 꾸미고 50여 개 단체가 참여한 ‘문화빌리지’는 초기에는 관객이 적었지만 일소문이 나면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모두 4천여명이 다녀갔다. 특

히 참여 예술인들에게도 호평을 받아 ‘상설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방안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듯하다.

▲‘문화빌리지’ 상설 프로 기대
공연예술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조청 작품’ 가운데는 관객들을 흡입할 수 있는 강력한 작품이 드

면서 행사 진행의 발목을 잡은 점은 아쉬웠다.

▲국제공연예술제 8~9월 개최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등이 임시방편으로 진행했던 이번 공연예술제는 8~9월에 열릴 예정인 광주국제공연예술제 평택을 있는 행사를다.

시비·국비 6억과 협찬, 입장권 수익 등을 더해 행사가 진행될 광주국제공연예술제의 성공을 위해 시급한 것은 (사)광주국제공연예술제 조직위원회의 체계를 개편하는 것. 현 조직위원회와 이사들의 임기가 6월말까

지만 내부 잡음으로 행사가 취소된 점을 감안하면, 과감한 개혁을 위해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광주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하고 문화계 의견을 모을 예정이며 문진위 역시 공연예술제 관련 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여론 수렴에 나선다.

또 차기 행사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노하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 행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 작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화 예술총감독은 “관객 수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문화빌리지 를 찾은 관객들의 호응이 커 다행”이라며 “지역 예술인들이 힘을 합쳐고 계획적인 조직을 갖춰 나간다면 비엔날레 못지 않은 공연 축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13일 폐막한 광주아시아공연예술제는 관객 동원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빌리지’ 등은 큰 호응을 받았다. 김복희 무용단의 공연 모습.

서양화가 유태환 개인전

13~19일 광주신세계갤러리

서양화가 유태환씨가 13~19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유태환은 소나무 등 결과 줄기를 소재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등이 훠고, 몸통은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해온 작가이다. 유씨는 이번 전시에서 주상과 구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the road’ 시리즈를 선보인다.

배경을 최대한 축소한 뒤 시원스럽게 면을 분할해 표현하고자 하는 길의 연속성을 화폭에 담았다. 또 흑백의 대비를 통해 색을 더욱 단순화시켰고, 색을 덜칠한 뒤 나이프로 긁어내 독특한 질감도 살렸다.

유씨는 조선대 미대를 졸업했으며,



‘the road’

제15회 현대미술대전 종합대상, 제27회 전라남도 미술대전 대상,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수십여 차례 개인전과 초대전에 출품했고, 현재 목우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신춘문학회 12번째 작품집

‘금남로 가는 길’ 나왔다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작가들이 개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집 ‘금남로 가는 길’이 나왔다.

광주일보신춘문학회(회장·노창

었으며 무엇보다도 최근 한국소설의 초미의 화두인 ‘국경넘기’의 테마를 자연스러운 서사속에 녹여낸 수작 이었다”고 평했다.

인재록씨의 ‘몸의현’ 등이 담겼다.

한편 지난해 신춘문예 당선돼 신입회원이 된 최일걸(시)·김순아(동화)씨의 작품 ‘구두 수선공’과 ‘고슴도치의 삶’사평도 실렸다.

노승수 회장은 “폭넓고 다양한 도서가, 그칠 줄 모르는 창작열이 문학이 자신은 물론 인간의 정신 문화를 살피우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남로 가는 길’ 출판기념회는 오는 20일 오후 4시 광주일보사 16층 대회의실에서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과 함께 열린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제4회 광주일보 문학상 수상작

이미란 ‘꽃의 연원’ 심사평 실려

수)가 올해로 12번째 출간한 이번 작품집에는 제4회 광주일보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미란씨의 ‘꽃의 연원’과 심사평, 수상소감이 실렸다. 심사위원들은 수상작 ‘꽃의 연원’은 “중국을 배경으로 유사한 산처를 지닌 한국인과 중국인 간의 소통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구성이 치밀했고 문장도 안정적이

이와 함께 함께 김현석씨 등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작가 27명의 시(21편), 동시(6편), 동화(10) 소설(8편) 등 미발표 신작 55편이 실렸다.

시 부문 작품으로는 김동현씨의 ‘금오산에서 길을 잊고’와 “일기예보를 믿느니 내의 수술자국을 믿기로 했다”라는 표현이 인상적

인정록씨의 ‘몸의현’ 등이 담겼다.

한편 지난해 신춘문예 당선돼

신입회원이 된 최일걸(시)·김순아(동화)씨의 작품 ‘구두 수선공’과 ‘고슴도치의 삶’사평도 실렸다.

노승수 회장은 “폭넓고 다양한

도서가, 그칠 줄 모르는 창작열이

문학이 자신은 물론 인간의 정신

문화를 살피우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남로 가는 길’ 출판기념회는 오는 20일 오후 4시 광주일보사 16층 대회의실에서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과 함께 열린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제4회 광주일보 문학상 수상작

이미란 ‘꽃의 연원’ 심사평 실려

수)가 올해로 12번째 출간한 이번 작품집에는 제4회 광주일보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미란씨의 ‘꽃의 연원’과 심사평, 수상소감이 실렸다. 심사위원들은 수상작 ‘꽃의 연원’은 “중국을 배경으로 유사한 산처를 지닌 한국인과 중국인 간의 소통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구성이 치밀했고 문장도 안정적이

이와 함께 함께 김현석씨 등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작가 27명의 시(21편), 동시(6편), 동화(10) 소설(8편) 등 미발표 신작 55편이 실렸다.

시 부문 작품으로는 김동현씨의 ‘금오산에서 길을 잊고’와 “일기예보를 믿느니 내의 수술자국을 믿기로 했다”라는 표현이 인상적

인정록씨의 ‘몸의현’ 등이 담겼다.

한편 지난해 신춘문예 당선돼

신입회원이 된 최일걸(시)·김순아(동화)씨의 작품 ‘구두 수선공’과 ‘고슴도치의 삶’사평도 실렸다.

노승수 회장은 “폭넓고 다양한

도서가, 그칠 줄 모르는 창작열이

문학이 자신은 물론 인간의 정신

문화를 살피우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남로 가는 길’ 출판기념회는 오는 20일 오후 4시 광주일보사 16층 대회의실에서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과 함께 열린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회장 선거 직선? 간선?

광주음악협회 ‘불협화음’

오는 14일로 예정된 광주음악협회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음악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재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사람은 서영화(조선대 교수), 강자근(전남대 교수), 윤재근(중앙여고 교사)씨 등 모두 3명. 최근 입관표 현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 관리위원회를 꾸린 광주음악협회는 14일 광주문화회관 브리핑에서 현 정관에 따른 선거를 치른다는 설명이다.

현재 간선제에 반발하고 있는 강씨는 후보자 등록은 마친 상태지만 14일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종관에서 현 정관에

따른 선거 부당성을 밝힐 예정이다. 반면 서씨는 음협에 ‘현 정관에 따라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상태다.

강씨는 “총회에서 선거 방식과 관련한 정관 해석을 둘러싸고 강호보족이 반발, 협회 층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데 이어 현 정관에 따라 신임 회장이 선출될 경우 회장 권한에 대한 가처분 신청까지 낼 계획이라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문제가 되는 정관은 회장 선거 절차를 규정한 28조다. 현 정관에는 ‘지회장 선거는 출석임원과 반대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말 일부 회원들이 결성한 바른선거실천연대는 김연숙씨 등 전임 회장들이 총회에서 직선제로 뽑혔는데 느닷없이 임원들만 참여하는 간선제를 채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관의 ‘출석 임원’은 ‘출석 인원’의 오타에 불과하며 20일 열린 총회에서 정관을

아시인의 ‘누구 시더라도’ 등 회원들의 시 50편이 시작노트와 함께 실렸다.

기쁜시문학회에서는 이번 10호를 계기로 새 식구가 된 신정숙·전재복·시인·비롯·국학문·김승희·윤수자·합진원·황영순씨 등 22명이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문학사·7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화보디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미가박스

구.린던약국사거리 ☎ 0544-0600

2관 상화점 (18세)

3관 과속 스캔들 (12세)

4관 마다가스카2 (전체)

5관 상화점 (18세)

6관 트와일러잇 (15세)

7관 에스맨 (15세)

8관 디파이언스 (15세)

9관 트랜스포터3 (15세)

* 이프류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과 함께) : 2시간 30분 초과시 경상요금 부과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번호) 228-2700

1관 베랑위의 포뇨(자막) (전체)/

2관 트와일러잇 (12세)/